

## 통계청, 한국 센서스 100년 기념 인구데이터의 역할과 경제적 미래가치 논의

- 한국경제학회 주관 「2025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통계청 특별 세션 구성

통계청(청장 이형일)은 2월 6일 「2025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인구 변화와 지역경제와의 관계’를 주제로 한국경제학회와 공동으로 통계청 특별 세션을 개최했다.

「경제학 공동학술대회」는 한국경제학회가 주관하고, 한국재정학회, 국제경제학회, 금융학회 등 57개 학회와 관련 대학 교수, 학생, 연구원, 정부기관 관계자 등 1,600여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학술대회이다.

통계청 특별 세션은 ①센서스 100년, 인구주택총조사 이해와 미래 가치, ②생활 인구 통계 산출 결과 및 시사점, ③국내 거주 외국인의 경제활동과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등 인구변화와 지역경제 및 인구데이터의 중요성을 아우를 수 있는 다양한 주제로 구성했다.

첫 번째 발표는 ‘센서스 100년, 인구주택총조사 이해와 미래 가치’라는 주제로 올해가 우리나라 센서스 시작 이래 100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서 센서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센서스 데이터의 활용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5년 주기 인구주택총조사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또한 영국, 호주 등의 센서스의 경제적 가치 측정 사례 소개를 통해 센서스 가치 측정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두 번째 발표는 ‘생활 인구 통계 산출 결과 및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2023년부터 통계청이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활인구 산정의 도입 배경을 설명하고, 심각한 지방소멸 위기에 지역별 체류인구 산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공공 및 민간데이터의 가명 결합을 통한 생활인구 산출 과정과 생활 인구의 지역 활력 증진 정책 사례를 소개하고 공유했다.

세 번째 발표는 ‘이민과 경제: 국내 거주 외국인의 경제활동과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통해 국내 거주 외국인의 변화 추이 및 경제활동 실태를 파악하고, 이민의 확대가 한국 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소개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과 이민 정책을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해외 우수 인재 유치와 육성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통계청은 작년에 이어 한국경제학회와 두 번째로 함께하는 특별 세션을 계기로 인구변화와 지역경제간의 관계 및 인구데이터의 역할 등 여러 관점에서 주제를 발제하고 세션 패널과 참석자 모두가 참여하여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생각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이번 특별 세션을 통해 2025 인구주택총조사 100년을 홍보하고 통계청이 인구감소 시대에 인구통계 데이터의 중요성과 활용 가치를 공유·확산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여러 학술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센서스를 포함한 국가통계 및 통계청에 대한 이해를 확대해 가는 계기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 붙임 1. 2025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통계청 특별 세션 사진  
2. 2025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통계청 특별 세션 안내문  
3. 발표 1 ‘센서스 100년, 인구주택총조사 이해와 미래가치’ 요약  
4. 발표 2 ‘생활 인구 통계 산출 결과 및 시사점’ 요약  
5. 발표 3 ‘이민과 경제: 국내 거주 외국인의 경제활동과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종합적 분석’ 요약

담당 부서	통계청 인구총조사과	책임자	과 장	김서영 (042-481-3720)
		담당자	사무관	김미영 (042-481-3736)



▶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특별 세션에서 인사말 하는 이형일 통계청장



▶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특별 세션에서 인사말 하는 이형일 통계청장



통계청



2025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 통계청 특별세션 안내

- ☆ 일시: 2025년 2월 6일(목) 09:20~10:50
- ☆ 장소: 한남대학교 56주년기념관(56동), 1층 중회의실
- ☆ 참여방법: 현장에서 참가 등록

※ 주제 ※

## < 인구변화와 지역경제와의 관계 >

발표1: 센서스 100년, 인구주택총조사 이해와 미래가치

발표2: 생활인구 통계 산출결과 및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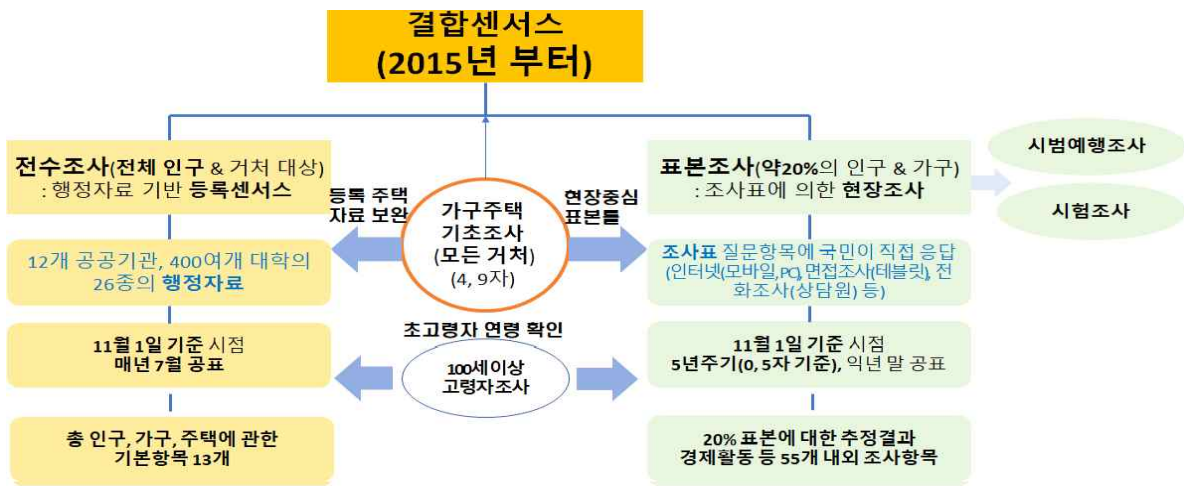
발표3: 이민과 경제: 국내 거주 외국인의 경제활동과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종합적 분석

2025  
인구주택총조사

※ 한국경제학회 주관  
「2025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특별세션으로 개최됩니다.

김서영, 통계청 인구총조사과 과장

- 우리나라 센서스는 등록센서스 방식의 전수조사와 현장조사 방식의 표본조사를 실시하는 결합센서스 국가 중 하나
  - 2025년은 1925년 우리나라에서 센서스(인구총조사)가 시작된 이래 100년이 되는 해로서, 전수조사와 표본조사를 모두 실시하는 의미있는 해임
    - \* 2015년 이후 결합센서스 방식 채택하고 있으며, 매년 등록센서스, 5년마다 표본조사 결과 작성 및 공표(통계청, KOSIS)
  - 센서스는 지난 100년 동안 우리 경제·사회 변화의 역사를 담아냈고, 이제는 통계적으로 또는 기술적으로 센서스 선진국으로서의 역할을 기대



- 2025 인구주택총조사(센서스)를 위해 '21년부터 지난해까지 전문가, 이용자, 이해관계자 및 국민과 소통하고, 사전조사, 자문위원회, 국가통계위원회 등을 거쳐 준비하였으며, 올해 10월말 인터넷조사를 시작으로 11월 18일까지 현장조사 실시 예정

- ▶ 2025년 표본조사는 저출산, 고령화 및 외국인 증가 등 변화하는 사회상을 측정할 수 있도록 다양한 조사항목 검토
  - \* 비혼동거, 가족돌봄시간(영케어러 포함), 임대주체 등
- ▶ QR코드·AI 기술 접목, 모바일 조사표, 행정자료 활용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안하게, 안전하고 부담없이 응답할 수 있도록 준비
- ▶ 국민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고품질 통계 생산하여 정부, 지역사회, 학계 등 정책, 계획, 연구 등에 필요한 국가기본통계자료를 제공

- 센서스가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지속 가능한 센서스 역사의 기록을 위해 가치 측정이 필요한 때임
  - 센서스의 사용처를 설명하기는 쉬우나, 데이터 활용의 현금가치 계량화는 상당히 도전적일 수 있음. 영국, 호주 등의 센서스의 가치 측정 사례를 통한 과제 발굴

## 붙임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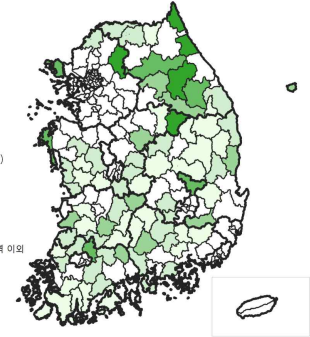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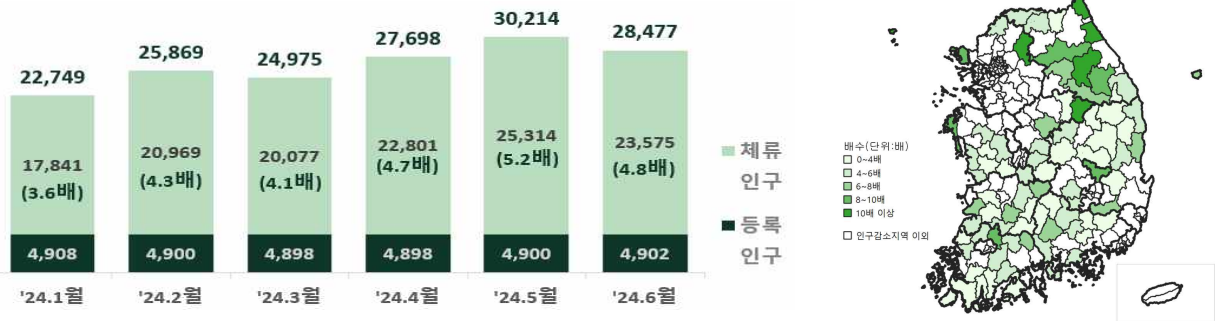
## 생활 인구 통계 산출 결과 및 시사점

김근식, 통계청 빅데이터통계과 과장

- 통계청은 행정안전부, 법무부의 주민등록·외국인등록 자료와 통신 3개사(SKT, KT, LG U+)와 카드 4개사(신한, BC, 삼성, 하나) 및 신용정보사(KCB) 등 10개 기관의 자료를 가명결합하여,
  - 인구감소지역 특별법에 따른 89개 자치 시군구의 생활인구 통계를 분기별로 작성
- 작성 결과, 인구감소지역 전체의 생활인구는 '24.6월 약 2,850만명으로 이 중 체류인구는 약 2,360만명으로 등록인구 약 490만명의 4.8배를 보임
  - 특히 강원 양양군은 체류인구가 등록인구의 17.4배로 타 지역보다 크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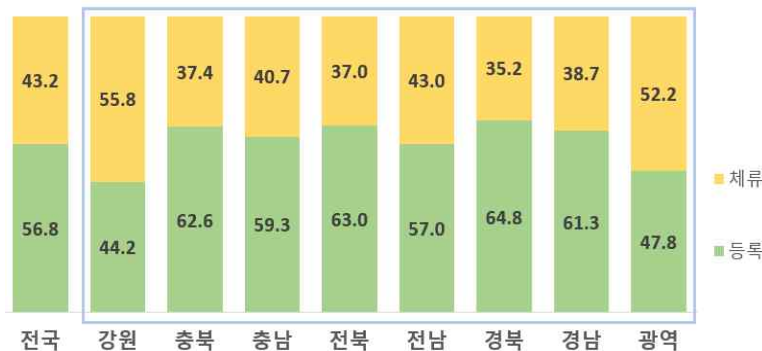
< '24년 생활인구 추이 >

< '24.6월 생활인구 배수 >



- 또한, 체류인구의 카드 사용 합계액은 전체 카드 사용액의 43.2%를 차지해 지역 경제에 적잖이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특히 강원과 광역시는 50% 넘게 차지(강원은 문화·여가, 숙박업, 광역시는 보건의료업 사용 두드러짐)

< '21년 연령별 가입률 및 연금보험료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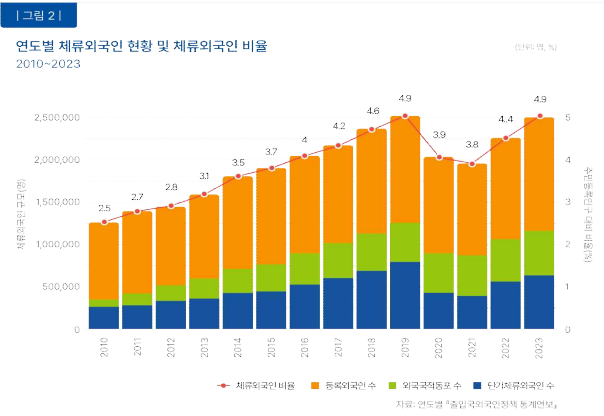


- 생활인구 통계는 지역소멸 우려가 심화되고 있는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활성화” 정책 수립 및 환류에 핵심 정보로 활용되어 지방활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이민과 경제(II): 국내 거주 외국인의 경제활동과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종합적 분석

김도원, 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본 연구는 국내 거주 외국인의 경제활동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이 국내 주요 경제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실증분석하였음
  - 가용한 통계·데이터를 다각적으로 활용하여, 국내 거주 외국인의 규모와 구성 변화 추이, 소득·소비, 납세, 사회보험 가입과 수급 등 외국인의 국내 경제활동 실태를 파악
  - 국내 거주 외국인 규모와 이들의 경제활동 확대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노동시장(취업과 임금), 지역경제 성장, 정부재정 등 3개 영역에 대하여 기초자치단체 패널 회귀분석을 수행
-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면, 2010년 이후 국내 거주 외국인 규모는 꾸준히 늘고 있으며, 이들의 경제활동 역시 다방면으로 확대되고 있음



- 생산 측면에서는 고용허가제 등 기존 외국인력 도입 정책에 따라, 제조업 종사자의 비중이 여전히 높지만, 과거 단순노무 외국인근로자 중심의 체류 외국인 구성에서 영주자, 유학생 등 체류유형의 다변화가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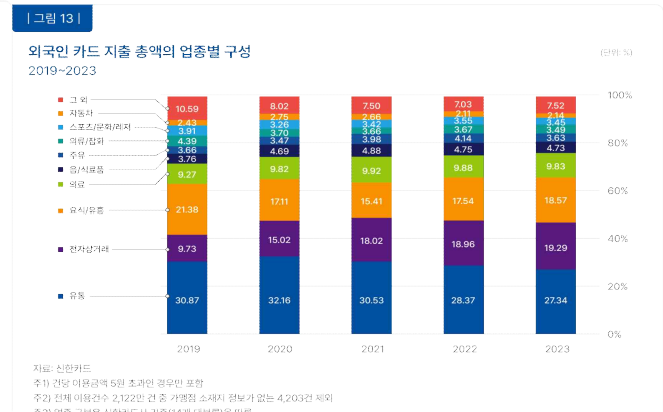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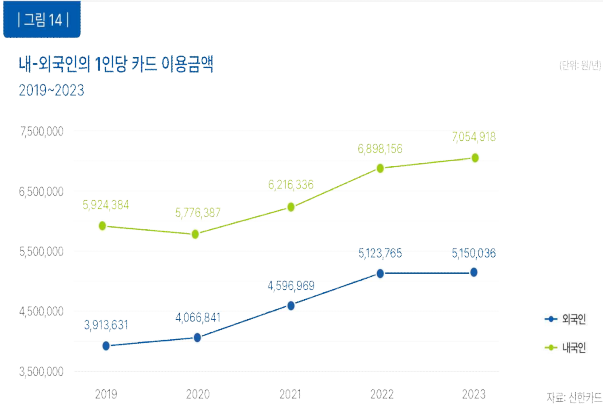
표 5 | 내-외국인 근로소득 비교 (2020~2022)

구분	외국인 근로소득			내국인 근로소득		
	근로자수 (만 명)	1인당 평균 연봉(만 원)	신고세액 총액(억 원)	근로자수 (만 명)	1인당 평균 연봉(만 원)	신고세액 총액(억 원)
2020	54.5	2,925.7	9,620.0	1,949.5	3,848.4	441,641.0
2021	50.5	3,179.2	10,802.0	1,995.9	4,044.3	526,986.0
2022	54.5	3,179.7	11,943.0	2,053.5	4,233.3	591,459.0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감, 각 연도.

(단위: 만 명, 백만 원, 억 원)

- 내국인에 비해 증가 폭은 작지만, 국내 거주 외국인의 소득 수준 역시 점차 높아지고 있음
-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외국인의 국내 소비활동 규모와 패턴에도 변화가 발생



- 소득, 소비뿐 아니라, 사회보험 측면에서도 건강보험, 국민연금의 외국인 가입자 규모와 수급 규모가 지속 확대되고 있음
- 지역 단위 패널 분석결과, 외국인·이민의 확대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노동시장, 경제성장, 정부재정 측면에서 서로 다른 효과가 혼재
- 지역 내 외국인 규모 증가는 내국인의 취업과 임금수준에는 다소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고졸이하, 제조업, 건설업 등 분야에서 이 같은 효과가 더 뚜렷하게 확인됨
  - 이는 고용허가제 등 기존 외국인력 정책이 주로 상기 분야 단순노무 인력 도입을 중심으로 시행되어 온 영향일 수 있음
  - 한편, 지역경제 성장(지역내총생산) 측면에서는 외국인 증가가 대체로 긍정적인 기여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림어업, 제조업, 서비스업 분야에서 각각 외국인의 증가에 따라 지역내총생산이 증가
  - (지방)정부재정에 대한 외국인 증가의 영향은 긍정과 부정적 측면이 혼재
  - 외국인이 증가하는 세입과 세출에 대해 모두 음(-)의 효과를 보였는데, 이는 정부 서비스 자원 감소라는 점에서는 부정적이나, 정부재정지출 부담 경감 차원에서는 일부 긍정적 해석이 가능
  - 국내 거주 외국인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통한 세수 증대방안, 정부 예산의 항목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응 등을 검토할 필요
-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인구감소 위기 대응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외국인·이민정책의 발전 방향에 관한 시사점과 이민정책 분야에서 데이터 기반 정책 연구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제시하였으며, 보다 심층적인 분석내용을 담은 후속연구를 수행할 예정임